

횡성군 폐쇄 국도에 2.4km 세계 최장 루지체험장

루지 카트 석명 불검출 판정 “안심하고 타세요”



강원 횡성지역의 폐쇄된 국도에 조성한 세계 최장 루지체험장이 8월 12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횡성군은 옛 국도 42호선 우천면 오원리~전재 구간 폐도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47억원을 들여 친환경적인 코스와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루지체험장을 조성했다. 루지체험장은 길이 2.4km 규모로, 단일 코스로는 세계 최장 수준이라고 횡성군은 설명했다. 횡성루지체험장은 바퀴와 제동장치가 달린 무동력 썰매를 타고 경사진 아스팔트 도로를 내려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얼음 코스를 활주하는 겨울 스포츠인 루지가 사계절 놀이기구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미 전국 14곳에서 운영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횡성 루지체험장은 국내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데다 기존 폐도로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체험장으로 주목받는다. 특히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9개 루지체험장 전수 조사 결과 루지 카트 부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곳 카트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설 이용료는 주말과 성수기 기준 1회권 1만5천원, 2회권 2만4천원이다. 평상시는 1회 1만2천원, 2회 2만천원이며 횡성군민은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입장권 구매 시 관광상품권(3천원)을 제공, 사용

토록 해 위축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우천면은 영동고속도로 횡성IC가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전국 최고 명품인 횡성한우 관련 식당이 밀집해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개장에 앞서 루지체험장 운영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 루지 코스 및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완료해 손님 맛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횡성한우체험관 재개관...전시판매장 오픈** 강원 횡성한우체험관이 지난 7월 30일 재개관하면서 1층에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횡성군은 2월 2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체험관 운영을 중단하면서 리모델링을 통해 1층에 전시판매장을 꾸며 기존 한우 관련 체험과 함께 한우 관련 산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 2018년 12월 문을 연 횡성한우체험관은 횡성한우를 활용해 떡갈비 버거와 소시지 만들기, 한우 가죽·뿔을 이용한 체험 등을 진행해 1년 6개월여 만에 관람객 3만1천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시판매장은 지역 6차산업 인증사업자의 농·특산품과 횡성한우 생산자 단체의 육가공품, 횡성 소뿔 아트와 조이문화상점의 화각, 가죽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❶



짜릿한 루지 체험, 이 곳이 바로 횡성!



성수기(야간개장)		7-8월
월-금요일	토/일/공휴일	
09:00 - 20:00	09:00 - 20:00	
비성수기		휴장
월-금요일	토/일/공휴일	12-2월
10:00 - 18:00	10:00 - 18:00	날씨 및 도로 상태에 따라 일정 조율
* 루지홈페이지 http://luge.hsg.go.kr		

구분	평일 월-금요일	성수기 주말/공휴일/7-8월	횡성군민 20% 할인
1회권	12,000원	15,000원	매포권 장당 3,000원 상품권 상품권은 횡성군 우천면, 안흥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2회권	21,000원	24,000원	

문의전화 : 033)342-5503~4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 321-7(지번주소)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전재로 407(도로명주소)